

수도원과 렉시오 디비나 (Lectio Divina)



김상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사 56:7f)는 말씀을 인용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불의와 부패를 청결하게 하셨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졌다.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기관은 교회와 수도원일 것이다. 수도원은 종교개혁 시대와 18세기의 시민 혁명의 시대에는 많은 수도원들이 강제로 해체당하거나 스스로 해산하는 몰락의 시기도 있었다. 그리고 개혁이 되어 수도원이 다시 일어서는 시기를 맞이하였다.

초기 기독교 역사는 수도원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수도원은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나 그 세력 중의 하나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징인 거룩함과 완전함을 보여주는 삶의 양식이 곧 수도사의 삶이라는 의식을 심어주었다. 로마 제국에서 313년의 콘스탄티우스(Constantinus) 황제의 밀란 칙령을 통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됨으로 기독교는 더 이상 박해받는 소수의 신앙이 아니었으며 대중적인 기와 함께 부와 권력의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이전에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박해와 순교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으나 그후에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오히려 출세와 세상적인 유익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시기가 된 것이다. 이 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했다. 따라서 그들은 영적인 삶을 위해 세속을 떠나 광야로 가서 금욕적인 은둔생활을 했다. 초기에 수도사들은 세상을 떠나 광야로 들어갔다. 그러나 세상은 광야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그리고 도시 안에 있는 대저택이 수도원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서 도시 수도원이 시작되었다. 4세기 말에 이미 수도사들의 무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되었다고도 한다. 그리고 수도사들이 선교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는 수도원을 세우고 수도사의 생활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고유한 생활 양식을 고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수도원은 수도사적 삶을 살기 위한 장소인 동시에 선교 활동의 중심지였고, 교회의 문화활동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또한 학교를 개설하여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수도사는 곧 성직자이었으며, 성직자가 개인 소유를 포기하는 서원만 하면 수도사가 될 수가 있었다. 수도원의 발전에 누르시아의 베네딕트(Benedict of Nursia)는 큰 영향력을 끼쳤으며 그의 규칙서는 수도사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베네딕트는 자신을 따르는 수도사들에게 영적독서를 하라고 지시했고, 그들이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일(opus Dei)"이라 불렀다. 베네딕트는 수도생활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생활"이라고 정의 하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배움터를 설립해야만 한다"고 하며 "우리가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마음은 넓어지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따르는 좁은 길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달콤함으로 채워질 것이다"고 하였다. 수도사들에게 수도원은 세상의 변방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부"로 여겨진다. 수도원은 세상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처하실 수 있는 자리이다. 수도원은 세상을 떠나서 관계를 끊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섬기는 장소라고 생각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기 때문이다. 어거스틴(Augustinus von Hippo, 354-430)는 "수도원 안에서의 생활은 바깥 세상에서 쓸모 있는 일을 하기 위한 밑바탕일 뿐이다"고 하였다고 한다. 수도원은 사람들이 묵상할 수 있는 곳이었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생활을 나눌 수 있는 곳이었으며, 또 독자적으로 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수도원의 활동은 하나님께 공간을 마련해드리는 것으로 기도의 영성과 직접 관련된 침묵, 기도, 예배, 공동생활, 섬김의 노동 등이 있다. 수도원의 생활은 침묵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침묵은 영혼을 순수하게 보존하며, 하나님의 힘에 내맡기도록 한다. 수도원의 저녁기도가 끝나면서 시작되는 한밤의 침묵은 절대로 준수되어야 할 만큼 중요하며 수도원은 완전히 적막에 잠긴다고 한다.

수도원에서의 생활은 무엇보다도 먼저 수도원 교회에서 드리는 공동예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배정하였다. 수도사들은 한밤중에는 시작기도(Matins), 아주 이른 새벽에는 찬미기도(Lauds), 동틀 녘에는 새벽기도(Prime), 그 후 약 두 시간 뒤에는 오전기도(Terce), 정오경에는 정오기도(Sext), 오후에는 오후기도(None), 초저녁에는 저녁기도(Vespers), 그 얼마 뒤에는 마감기도(Compline)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하루에 8번의 예배를 드렸다. 수도원의 삶은 단순하고 금욕적일뿐 아니라 자급자족을 실현하였다. 모든 것이 수도원의 담장 안쪽에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사들은 씨를 뿌리고 추수도 하고 짐승도 길렀다. 수도원은 병들고 약한 형제들에게도 적절한 일거리를 주어서 그들의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너무 무거운 일을 맡겨서 그들의 육체를 짓누르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육체 노동은 꼭 해야 하는 의무였으나 그 목적은 자신들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것을 얻는 수단인 동시에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또한 수도원은 찾아오는 손님들을 그리스도를 맞이하듯이 정성스럽게 맞이하여 손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맞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수도원이 발전하며 의식과 관련된 활동과 공동체를 위한 노동이 반복되어 개인의 영적 발전을 위한 공간이나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일 공간이 없어 고독하게 살아가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수도원에서 독립하여 고독하게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기 위하여 홀로 생활하는 많은 은수자들이 있었다. 수도원에 머무르든 은수자가 되었던 수도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삶의 핵심은 기도와 묵상이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어떻게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로 채울 수 있었을까? 종교개혁이후에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기도는 대부분 자신의 소원을 간

구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수도원의 기도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그들은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였는데, 그 방법들은 수도원에 따라서 예수 기도(Jesus prayer), 구심 기도(Centering prayer), 상상력을 이용한 기도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그 방법은 조금씩 다를 지라도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드린 요한복음 17장(21,22)에서 볼 수 있는 그의 뜻이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은 매우 신비스럽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하게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의 하나됨이다. 뜻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의 백성이나 그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은 하나이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설득 당하는 과정이다.

Lectio Divina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는 것이다.

Lectio Divina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 몇 년 전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었을 때, 'Back to the Bible'의 구호가 있었는데, Lectio Divina 없이 어떻게 성경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수도원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위기에 처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세웠던 모임이다. 수도원에서 행했던 기도와 묵상은 구원의 신앙을 지켜왔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 기도들 - 예수기도, 구심기도, 상상력을 이용한 기도, 렉시오 디비나 - 를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나가기 바란다. 

* 현재 뉴저지 청지기 교회 목사

*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Doctor of Ministry Program의 Korean cohort의 책임자

* 개신교 수도원 렉시오 디비나 9대 회장